

지난해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올해는 수요 전망 부정적

**신차 판매 전기차 비중 처음 두 자릿수 돌파
자동차 시장 위축 속 전기차 판매 크게 늘어
올해 침체 우려·보조금 폐지 등 수요 감소 예상**

지난해 판매된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신차 판매 비중에서 두 자릿수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LMC오토모티브와 EV 볼륨닷컴을 인용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가 780만 대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과 유럽 시장 덕분이다.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중은 유럽이 11%, 중국이 19%였다. 유럽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할 경우 비중은 20.3%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중국과 유럽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기차 비중이 전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증가했다.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는 지난해 전기차가 전체 신차 생산량의 25%를 차지했고, 12월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앞질렀다.

지난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MC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글로벌

신차 판매는 전년보다 1% 감소한 8060만대로 집계됐다. 세계 경제 둔화와 에너지 비용 급등, 공급망 혼란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8%, 7% 줄었다.

BMW는 지난해 신차 판매가 5% 감소했으나 전기차 판매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도 신차 판매가 7%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26%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WSJ은 전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소비자들을 짓누르는 데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전기요금에 오른 점도 전기차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최이슬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창립 20주년 온라인 스페셜 모델 한정 판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0주년 기념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주년 기념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매달 20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에서 한정 수량으로 공개된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예약금 100만원을 결제하면 차량을 예약할 수 있으며 전국 64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중 한 곳에서 차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첫번째로 공개되는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580 4MATIC 블루 스타 더스트 나이트'로 24대 한정 출시된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80 4MATIC 블루 스타 더스트 나이트'는 차별된 내외관 디자인과 최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이 탑재된 차량으로,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의 독보성과 희소성을 모두 갖췄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요하네스 슐 부사장

매달 20일 온라인 스토어 공개, 전국 64개 전시장 출고 가능



은 "매달 새로운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소개하며 고객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난 20

년동안 메르세데스-벤츠를 사랑해준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캐리어, 프리미엄 에어컨 신제품 '디 오퍼스'

캐리어에어컨이 AI 기술 기반 디자인이 강화된 프리미엄 에어컨 '디 오퍼스(The Opus)'를 17일 출시했다.

신제품 이름은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나 규모가 큰 예술 작품에 붙이는 'Opus'에서 가져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이 캐리어의 핵심 기술력과 가치를 담았다.

외형적으로는 히든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간결한 디자인에 절제된 컬러를 사용했다. 색상은 실버, 라이트 그레이, 내추럴 블루, 라이트 그린 4가지다.

신제품에는 다양한 기능의 AI 기술이 탑재됐다. '주변 환경 맞춤 AI운전'은 주변 환경과 3D시뮬레이션 AI 기술로 연결돼 쾌적한 공간을 구현해주는 기술이다. 'AI 음성 제어' 기능은 음성 명령을 통해 제품을 편리하게 원격 작동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 오퍼스'는 18단계 바람을 적용해 냉방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로도 사계절 사용할 수 있다. 5단계 헬스케어 시스템을 적용해 장마철, 황사 시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HAF(High Air Flow) 필터 적용으로 PM1.0 크기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또한 내부에 설치된 UV LED가 공기가 지나가는 열교환기와 팬을 동시에 살균하고 나노이온이 적용돼 페렴균과 곰팡이 등 부유 미



생물의 발생을 줄인다.

냉방 또는 제습운전 후에는 AI 건조 메커니즘 구현돼 열교환기에 남아있는 잔여 수분이 마를 때까지 팬의 운전 시간을 자동으로 제어해준다. 이를 통해 에어컨 냄새의 주요 원인인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R32 냉매'가 적용돼 높은 에너지효율을 구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절감시킨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2023년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한다. 세 기업 슬로건 공개와 함께 2023년 전 제품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던킨, 설맛이 전통 디저트 '허니 글레이즈드 약과' 출시



2030세대 한국 전통 디저트에 대한 관심 높아져

홈플러스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서 생산되는 고급 싱글몰트 위스키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3종'을 단독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랜지스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버번, 럼, 셰리 캐스크에 각각 숙성된 3종으로 출시된다.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서 미국산 오크통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숙성해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고, 블렌딩을 하지 않은 싱글몰트 위스키 본연의 강렬한 맛까지 챙겼다.

'그랜지스톤 버번 캐스크(750ml·3만8900원)'는 은은한 오크향과 함께 잘 익은 과일의 산미를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그랜지스톤 럼 캐스크(750ml·4만3900원)'는 섬세한 오크 풍미와 녹색 잎 향의 조화가 일품이며, 바닐라의 달콤함과 캐러멜 처리된 과일의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랜지스톤 셰리 캐스크(750ml·4만7900원)'는 달콤한 참나무, 건포도, 살구, 신선한 참나무가 겹겹이 쌓여 풍부한 맛과 부드러움이 입안에 오래 남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12일 론칭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클럽 '주주클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위스키 전 품목 5% 할인 쿠폰을 통해 최대 1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텐바이텐, '인기 캐릭터' 쿠로미 굿즈 신상품 단독 출시

신제품 론칭 기념 혜택...1만원 할인 쿠폰 라이브 커머스 실시 33% 할인 판매 예정

텐바이텐이 인기 캐릭터 '쿠로미'를 활용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한다. 텐바이텐은 산리오와 손 잡고 '쿠로미 프로젝트' 굿즈 신상품을 국내에 단독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쿠로미 프로젝트'는 쿠로미의 다양한 도전을 담은 프로젝트다.

신제품 론칭 기념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오는 31일까지 '쿠로미 프로젝트 홀로그래프 무드등' 구매 시 즉시 사용 가능한 1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로미 스티커와 메모패드 등 랜덤 구매 사은품도 마련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제품을 한 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된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 캐릭터 굿즈를 최대 6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텐바이텐 관계자는 "새로운 캐릭터 굿즈 라인업을 기다려 온 국내 팬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도를 높인 무드등 신제품을 론



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아성다이소, '욕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욕실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욕실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도록 모노톤의 색감을 사용해 상품을 구성했고, 욕실용품, 샤워커튼 등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욕실소품은 양치컵, 리필펌프, 소품 정리대 등 세트로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을 준비했다. '프리즘 투명 양치컵'과 '프리즘 투명 칫솔꽂이'는 색감을 맞춰 함께 구매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원통형 리필펌프', '정사각 거품용기와 같이

사용하면 단조로웠던 욕실에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욕실 소품 정리대'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고, 크기가 작아 1인가구에 적당한 아이템이다.

공간분리에 사용하기 좋은 샤워커튼은 손세탁과 생활방수가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욕실용품을 판매한다. '모던 스틸 페달휴지통'은 휴지통 안에 통이 하나 더 있는 분리형 구조로 쓰레기 처리가 간편하고, '알레 디퓨저'는 코튼향으로 욕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하다.

오유나기자